

# 新局面을 맞이한 西歐의 電子市場

—Hannover Messe '85—

## □ 개황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산업견본시 Hannover Messe '85가 서독 Hannover시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에 걸쳐 개최되어 8일간 120개국으로부터 85만명의 참관자가 모여 드는 등 활기를 보인 바 있다. 출품기업은 44개국으로부터 7,100개사에 이르러 사무 정보처리 기기를 비롯한 Electronics, 기계, 철강, Material handling, 조명, Robot관련 등 10개산업분야에 걸친 신기술, 신제품이 소개된 바 있다.

24개에 이르는 각 hall 중 한결 눈길을 모은 곳은 사무 정보처리 기기관련 「Ce BIT」로 불리어진 1, 2, 3, 4 및 18의 5개 hall이었다.

최근의 Office, data, 정보처리분야의 급성장은 새로이 폭넓은 제품이나 System을 실장에 출현시켰을 뿐 아니라 Application software 등 응용분야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CeBIT에서는 hard는 물론 여러 방면에 걸친 광범위한 Application이 소개되었다.

IBM, Siemens, Nixdorf 등 유력 Computer

maker의 booth는 마치 사세를 과시하듯 대규모 전시를 하고 있었으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객개개인과 그 Needs 에 대응한 corner가 설치되어 각각 User와 방문객에 알맞는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었다.

CeBIT에는 1,276사가 출품, CAD/CAM을 비롯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data처리 System(hard 및 software), Microcomputer, Personal Computer, Workstation, Office통신기기, Wordprocessing system, Printer, 복사기, 주변장치, Facsimile, ECR, Electronic typewriter, ISDN(digital통신망), 서독의 videotext「Btx」 Electronic mail, Teletex, Banking system, 기타 각종 사무용품 등 다수가 출품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수많은 신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Personal computer의 경우를 보면 Nixdorf가 일본 maker의 OEM공급을 받아 IBM-PC/XT와 호환성이 있는 8810/25외에 「System PC. 8810/65」를 발표하였는바, 특히 System PC는 Standalone은 물론 Intelligent workstation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주목을 끌었다. TA사는 MS/DOS사양의 PC-16을 서독에서 2천mark(50만원)이하 가격으로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잘 팔리고 있는 「Alphatronic PC」 등으로 의욕적인 면을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 DEC가 CIM用PC, SEL(Standard Electric Lorenz)이 ITT/XTRA, 서독 HP사가 기술제산용PC를 소개하는 등 PC business에서 기염을 토하고 있었다. UNIX base의 Computer를 NCR, Nixdorf, DEC, Olivetti/ATT 등이 출품, 구미 주요maker들이 이번 Messe에서 처음으로 구주시장에 총출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본계기업의 Hannover Messe에 대한 자세도 단단한 면이 있어 Panasonic(독일松下), 東芝, SHARP, NEC, 富士通 등 현지법인, 직접, 간접포함 약 130사가 궁리를 다한 전시로 appeal하고 있었다.

## □ ISDN도 적극적으로 소개

구미의 Computer, 사무기, 정보처리 기기 maker들은 상설인 CeBIT 1호관에 출품하여 활발한 business와 기업 image up을 도모하고

있었다. 태반의 대기업들은 CeBIT hall의 옥상에 통칭 「아파트」로 불린 특별 상담코너를 마련 dealer와의 접촉을 심화시키거나 자사 신제품 발표회장으로 이용하는 일도 많았다. 서독의 Nixdorf사는 첫날 동사 옥상 아파트에 약 300명의 기자를 초청, 동사의 현황, Hannover Messe 출품 신제품 발표를 했다. 신제품중 특히 videotex편집 system 88ED, 다기능 Professional workstation(PWS) 및 videotex전화 단말 BTO 1 등의 소개가 눈에 띄었는데 PWS는 CPU로 Intel의 80186 processor, OS로 MS/DOS 2.11을 base로 하여 PC기능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고해상도 screen(window technic)으로 최대 8 종류의 서로 다른 application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BTO 1은 앞으로의 analog 및 digital PABX(구내교환기) system용으로 또한 일반 전화회선에도 접속사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IBM은 고속Printer의 신기종(「4245 printer」 model 12 및 20의 두가지 기종)을 추가발표했다. IBM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cost performance, 저소비전력, space화를 꾀하고 폭넓은 software support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Computer 설치대수로서도 제일인 IBM은 현재 서독에서만 3,500개사의 software분야회사와 연결을 맺고 대형에서 중소형Personal computer에 이르기까지의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등 software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IBM의 booth에서는 IBM PC가 약 30가지 용도별로 배열되어 Btx project service를 비롯한 각종 Program이 소개되었다.

서독연방우편(DBP)에 의한 Digital통신 network system,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SEL, Siemens, TELENORMA(Telephonbau und Normalzeit), 「Sopho S」의 Philips가 눈에 띄었다. ISDN은 음성, text, data, 화상 정보를 Digital로 단일 network에 의해 다량 반송할 수 있는 통신 system인데 SEL은 ISDN 시장을 노려 digital통신기기 「System 12B」를 소개하고 있었다. Siemens는 「Digital교환 system EWSD개발을 통하여 ISDN의 필요성을 절감」 HICOM-ISDN을 내세우고 있었으며 IS

DN의 시장성과 함께 관련 반도체분야에서도 「Sicofi」나 「Peripheral Board Controller」 등을 통해 ISDN concept를 backup해 나갈 태세였다.

또한 광fiber 부문도 간과할 수 없는바, Siemens에 의하면 세계의 광fiber 수요는 연 40%씩 신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150만km의 광fiber가 부설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100만km, 서독이 4만km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시장에서는 Siemens와 Corning Glass의 합작기업인 Siecor사가 40%의 share를 갖게 된다 TELENORMA도 ISDN을 앞세우고 동사의 「Integral 222」와 「동 333」을 PR하고 있었다.

서독연방우편(DBP)이 ISDN과 병행 주력하고 있는 것이 Btx분야이다. Btx는 서독판videotex인데 유럽의 EPT(구주우정심의회) 규격에 의한 system으로서 DBP가 하고 있는 「Post Giro」 service도 그 일종이다. 이는 은행의 예금, 인출 등을 집에 있으면서 Btx대응TV/monitor와 전화회선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밖에 Btx로 user는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DBP를 비롯 Philips 등 업체가 Btx단말시장을 둘러싼 PR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 □ 컴퓨터 분야, UNIX지향 강화

Computer분야에서는 mainflamer의 UNIX 지향현상이 유럽에서도 강화되고 있음이 이번 Messe에서 인상적이었다. NCR이 「Tower Family」인 mini Tower, Tower XP(모두 UNIX v base)로 구주시장에 공세로 나선 것을 비롯 Sperry사도 UNIX가 동사의 표준OS임을 표방, 서독에서 UNIX model판매시기가 가까움을 시사했다.

Personal computer분야에서는 영국의 ACT(Applied Computer Technic)사가 「Applicot」 16bit business PC를 가지고 서독시장 강화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동사는 영국PC 시장에서 35%의 share를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이내에 전 유럽에서 10~15% share를 획득하는 것이 당면 목표로 알려졌다. 「Applicot Portable」은 Intel 8086 processor, 256K RA

M, 양면 3.5inch floppy disk, cordless mouse (option), flat screen display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Comodore는 home computer뿐만 아니라 business분야에서도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C-128, IBM compatible인 PC-10, PC-20(hard disk탑재), UNIX대응 900 series 등 신제품을 투입하고 있었다. MS/DOS base의 computer는 Erricson, SEL, NCR, TA 등 다수 maker가 출품하여 최근 경향을 말해 주는듯 했다.

PPC(보통종이 복사기)분야에서는 일본기업이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매수share(금액기준)에서 유럽톱인 Xerox가 복사기「1045」등 10 series외에 「ladylike」electronic typewriter, 인공지능(AI)workstation 1108을 주종 품목으로 전시, 서독Xerox사 창립 25주년('84)을 계기로 대대적인 PR을 하고 있었다. Kodak은 복사기「EKTAPRINT'85」microfilm system 등을 LAN으로 통합, 소개하고 있었다. Agfar는 zoom기능이 붙은「X2」에서 고급기「X41」까지 폭넓은 PPC를 Develop사는 「서독제」PPC를 앞세우고 있었다. 3M은 PPC「Secretary」series, portable graphic system 등 외에 Computer 주변장치도 전시하고 있었다.

## □ 日系들은 自社브랜드 PR에 注力

일제기업의 출품회사수는 133사, 그중 CeBIT hall 출품은 전에 비해 13개사가 많은 68개사였다. 작년까지 대리점 출품형식이었던 神電氣나 부품중심이었던 日立 등 대메이커들이 올해부터는 사무 정보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scale up의 인상을 주고 있었다.

출품 형태를 보면 대메이커들은 한결같이 회사의 힘을 과시 PR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자사 Brand와 Image 침투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직관 가능한 OEM제품의 line up 및 개발도상의 신제품을 위한 특별실을 마련 dealer를 초대하여 시장분석을 겸한 demo 등을 행하는 등 열띤 시장 획득 경쟁에 임하고 있었다. 이 show기간 중 대체로 1년분의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Ricoh에서는 사장이 진두지휘하여 직접 booth에 나서고 있었고 매일밤 스탭회의를 소집, 구주시

장 대책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시장동향을 충분히 파악한 전시방법으로서 잘 팔리고 있는 물건을 전면내세우고 고객에 대한 세세한 배려를 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해외 시장에서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dealer나 distributor 망을 어떻게 확보, 확립하는가가 중요과제인데 특히 유럽에서는 각국의 사정이 달라 실정에 맞는 대처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 show에서 일본계 기업들의 중요과제의 하나가 dealer 망의 확립에 있어 서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CeBIT hall 전체의 출품업체 약 1,600개사 중 일본계는 68개사이므로 큰 비중은 아니나 일본계 기업들의 출품내용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 — Personal Computer

일본기업의 전시에 대해서는 Computer에 대한 출품각사들의 의도가 분명치 않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NEC를 비롯 富士通 등 Computer maker 각사는 기계를 전시하고 있었으나 attraction적인 효과를 노린 전시나 이용방법이 많아 Personal Computer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하는 면이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三洋의 경우도 LAN system을 demo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납득은 되었으나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았다. 그런 가운데서 SHARP, 東芝, EPSON 등이 PC구주판매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었고 SHARP는 작년 가을 Hamburg에 개설한 Software Center를 소개하는 Software 상담 corner를 전면내세워 PR에 임하고 있었다. Hardware는 MZ 8000 등을 포함한 IBM Compatible을 전시, business분야를 노리는 한편, 작년 현지業界誌로부터 수상한 액정 portable PC 5000을 application software와 함께 demo, 여러가지 사용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SHARP는 Pocketable Computer User를 구주에 많이 가지고 있어 차츰 PC로 level up되는 중이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東芝도 올해는 PC가 주력상품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며 현지의 system house와 제휴, 풍부한 software와 함께 액정 portable PC T-1000, T-1500 등을 demo하고 있었으나 어쨌든

software없이 PC는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1. Printer

Printer는 전화에 이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었는데 EPSON, STAR精密의 2대 메이커의 booth는 물론 伊藤忠 Electronics, 富士通, CANON 등 booth에도 사람이 많이 몰려 printer에 대한 수요는 뿌리가 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EPSON은 소형고성능의 Dot printer, RX-80, FX-80, Inkjet Printer SQ-2000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를 전시하고 있었고 매상의 70%가 Printer인 STAR精密은 Impact Dot의 full line을 전시하고 있었다. 伊藤忠은 入門者용 flatpaperfeeder를 갖춘 lowend에서 9 pin짜리 350CPS의 고속 model인 CI-3500(6천 mark) 등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었다. 유럽은 지질이 나빠 paperfeeder 트러블이 그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

Color printer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富士通의 24pin 8개국어 대응 DPL 24 SHARP의 Inkjet Printer, 東芝의 초소형 열전사 Printer 등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었고 이밖에 Laser Printer, Ink Dot Printer 등도 눈에 띄었다.

### 2. 磁氣 memory

FDD, Hard disk 등 磁氣 memory 제품도 많은 기업에서 출품되고 있었다. TEAC은 5.25 inch의 FDD, 같은 size의 Hard disk를 비롯, cassette와 open reel의 back up용 memory 등 다기종을 갖추고 있었고 富士通도 5.25inch FDD, tape cartridge, 10.5inch로 473.6MB에서 689.8MB의 Hard disk 등 OEM상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밖에 東芝, 日立, 東京電氣, EPSON 등도 전시.

### 3. Facsimile

일본의 현지 OEM 공급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각기업이 model수는 적으나 거의 출품하고 있었다. 모두 GIII 대응기를 중심으로 소형기를 sales point로 내세우고 있었고 松下電送이 Panacs UF-400, 日立, Ricoh, NEC, SHARP도 각각 신형기를 내놓고 있었다. CANON은 同報

機能과 autodialer가 내장된 신형기 2종과 보통지 사용가능한 laser FAX 1기종을 전시. 동보 기능은 서독에서 아직 인가되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신청중이라는 것. Laser FAX는 올 가을 서부터 판매개시 예정인데 서독시장에서 약 2만 mark쯤으로 내정하고 있다 한다.

또한 통신시장을 위시한 제품으로써 전화기가 있었으나 유럽에서는 아직 시장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아직은 시기상조의 느낌이었다. 이밖에 沖電氣가 서독판 Teletex시장을 노려 Teletex system, Okltex 2000을 대량전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통신수단에 의해 data전송에 대한 approach로서 소형 personal use의 portable typewriter/printer에 capler를 부친 demo가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 4. Copymachine

일본기업들의 주력 상품이라면 역시 복사기 관련제품이었고 자사 Brand, OEM model, 관련 부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었다. 일본에서 주요 사무기기 전체의 판매금액 중 2분의 1을 차지하는 복사기는 약 75%가 수출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만큼 그 전시도 다양했다. 松下, SHARP, 三洋, Minolta, 三田工業, Kyocera, CANON, Ricoh, 東芝, 小西六, Olympus, Copia가 full line전시에 임하고 있었고 최초의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소형 personal기, colortoner대응기, 중속기(中速機)를 비롯 올해에는 고속기, full color기, colortoner기에 특히 주력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저가격복사기의 cost절감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생산 자동화로서는 흡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수명이 긴 Se 감광체보다 수명이 짧은 저가격 OPC drum을 쓰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Maintenance free화와 함께 portable화가 추후되고 있었다. 또한 고속기분야에서도 종래의 1분간 40매 수준에서 50매 혹은 79매 수준의 model까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줌의 감광체로 불려왔던 Amorphous silicon 감광체를 쓴 기계나 자동양면기 등 아직까지는 미국 maker들이 sales point로 삼아왔던 분야로 차츰 옮겨

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 5. ECR, POS system

복사기의 화려한 분위기에 비하여 이 또한 일 제기업들이 펼쳤던 ECR, POS system 분야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다. top maker인 東京電氣를 비롯 각 종합maker의 ECR부문과 Casio, General, 立石電機, 日本金銭機械, 아스 터精機, 막스電子, 東和선機電, 킹트론, 유니 웰, 나스코 등 각각 수출실적을 갖고있는 중견 기업들도 참여, 주력상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ECR도 저고급기종으로 양분화되는 인상이었고 ECR도 점포규모나 업종에 따라 system식으로 쓰여 50여대를 연결, data집계를 하고 간이 POS system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수요에 따라 host에 16 bit personal computer를 사용 scanner로 barcode를 입력, 磁氣disk에 기억시키는 이른바 module type의 POS system이 ECR maker뿐만 아니라 여러 booth에서 눈에 띄었다.

ECR은 일시 수요정체현상을 보였으나 유통시장 쪽에서 도입경향이 활기를 되찾고 대체수요와 이태리 등의 세금신고 대책에 따른 강제도입 등으로 다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었다.

### 6. Electronic typewriter

전자typewriter도 수출비율이 높아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추이를 보이고 있다. Brother, CANON, Silver精工 등 3대 top기업을 비롯 東京電機, 東京電氣, SHARP, Casio, Ricoh 등이 신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CANON은 office 용으로 종전의 AP 3000을 보다 소형화하고 IC 화율을 높여 사용부품을 대폭 줄인 신 model AP-150, AP-100을 소개하고 있었다. Brother, Silver도 잘 달리고 있고 중급기에서 대형 model까지 전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작년이래 전자typewriter를 둘러싼 dumping과세 문제로 그 대책에 부심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 문제의 발단이 일본으로부터 OEM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지기업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일기업간의 문제로 귀착되어 착잡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Electronic typewriter 대신 Keyboard multiprinter로 이름을 바꾸자는 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 7. 電卓, 電子黑板

인기 상품의 하나로 여전히 주목을 끌고 있는 전탁은 Casio의 Card size, SHARP의 Pocketable Solarcell을 비롯 관수전탁, CANON의 printer전탁 등이 전시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분야의 제품은 눈에 띄지않았고 거의 기존 기종의 full line화 혹은 version up model을 갖춘 형태의 전시였으나 많은 인파를 끌고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흑판의 출품이 늘고 있었으나 OA기기를 system으로 파악하려는 구미시장에서 통용되려면 좀더 개량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주었다.

### □ 향후의 Hannover Messe

사무정보처리센타(CeBIT)는 그동안 Hannover Messe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왔으나 내년부터는 독립된 CeBIT Messe(CeBIT Messe '86은 3월 12일~3월 19일)로 개최된다.

한편 CeBIT가 빠진 Hannover Messe '86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무기, Computer 등 정보처리기기관계와 Electronics를 중심으로 한 automation, 기계, 조명 등 산업분야의 들로 크게 나누이게 되어 교통, 숙박 등의 혼잡이 완화되고 300개사에 이르는 CeBIT waiting list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CeBIT Messe는 내년부터 Telecommunication분야가 강화되는 등 더욱 더 확대 발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Hannover Messe는 CeBIT가 빠지게 되더라도 사람이 모일 것이냐 하는 걱정도 일부 없는 것도 아니나 주최측에서는 energy나 산업용 automation분야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새로 시작된 Ce MAT(Material handling기술)도 장래를 내다본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

이번 열린 CeMAT는 산업용 Robot, 운반기구 등에 사람이 모이고 있었고 Microelectronics분야도 인기를 끌어 특히 professional electronic을 표방하여 거의 전제품을 출품한 Grundig가 주목을 끌고 있었다. CCD Sensor를 이용한 Compact camera FA-79CCD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을 비롯 ENG(電子取材)용 CTV came-

ra FA72가 스타상품이었고 계측, 산업용기기, 무선BTX monitor, analog 및 digital 계측 기술 소개를 통하여 전자계측분야의 강화를 내걸고 있었다. Philips는 oscilloscope, logic analyzer, multimeter, signal generator, CPU지원 system 등 계측제어 전반을 소개하고 있었고 일제 기업들도 참가하고 있었다.

서독전자공업중앙연맹(ZVEI)에 따르면 서독

의 전자공업생산은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금액으로는 1,100억mark의 규모. 이는 전세계의 약 7%에 해당하며 유럽의 35%로서 프랑스, 영국의 각 20%를 누르고 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개의 Hannover Messe」도 서독뿐만 아니라 세계의 Electronics 산업계로부터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P. 51에서 계속)

프린터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三菱電機는 Thermal Transfer 컬러프린터에 Serial 타입의 小型機를 추가하여 주목되고 있다. 同社는 이미 中型라인타입을 보유하고 있으나 新機種은 무게 7.5kg로 라인타입의 반 정도의 輕量化를 실현시키고 있다. 東芝도 中型 라인 타입인 Thermal Transfer 컬러 프린터를 출품했다.

그 밖에 Sharp, Epson, Brother, Canon, 沖電氣, 伊藤忠 등이 Dot Matrix, Inkjet Laser 라는 각종 프린터를 갖추고 있어 동분야에 있어서의 日本 메이커의 저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

IBM사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포터블 컴퓨터는 고참메이커들이 通信 기능을 중심으로 高附加價值化를 추진시키는 한편 신규 메이커들도 잇달아 同컴퓨터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Canon케이프로, TAVA 등 각사에서 80字×25行 液晶디스플레이를 搭載한 포터블로 同市場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케이프로 제품은 워드프로세싱, 데이터 베이스, 스프레드 시

트 라는 소프트를 bundle化하여 표준가격으로 2,000弗을 밀돌고 있어 환영을 받고 있다.

通信과의 統合이라는 의미에서 松下電器, Northern Telecom사는 각각 新型 低價格 디스플레이폰을 발표했다. 松下 제품은 電子메일, 데이터베이스 등의 需要를 겨냥한 것으로 1,500弗이라는 低價格으로 代理店으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三洋電機는 新型 IBM Compatible 2機種을 추가하여 컴퓨터 本体에 대한 판매에 정면으로 나서고 있다. 同社를 라인을 갖추므로써 Compatible路線를 견고히 하겠다는 意向으로 ATT Compatible機에 대해서도 근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

이번 春季 COMDEX는 750個社에서 출품, 5만1,500명의 來場客으로 성황리에 幕을 내렸으나 내년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올해와 같은 장소인 조지아州 아틀란타에서 개최된다.